

상 법

2015년 시행 5급(행정) 공채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甲주식회사가 성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, A는 자신이 소유한 甲회사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 주식양도에 관하여 甲회사에 통지를 하였으나, B에 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. 그 후에 A는 B에게 양도한 주식을 C에게 이중으로 양도 하였으며, C는 양수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. 그러나 B와 C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. 그 후 대표이사인 D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영업의 주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결의를 하였다. 다만, 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B에게는 소집통지가 없었다. (총 25점)

1) B는 자신이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A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? (15점)

2) B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? (10점)

제 2 문. A는 ‘맛나떡집’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 오던 중, 건강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떡집 영업시설 전부를 B에 양도하였다. B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떡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. (총 15점)

1) A가 영업을 양도한 지 6개월 후 건강이 회복되어 ‘맛나떡집’ 근처에 ‘일류 떡집’을 개업하고 영업을 재개하였다. B가 A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는 무엇인가? (7점)

2) A가 영업을 B에게 양도하기 전에 A의 종업원 C가 자동차로 떡을 배달하다 행인 D에게 상해를 입혔다. 이 경우 D는 A와 B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 (8점)

제 3 문. 20대인 A는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甲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승용차를 주로 운전하게 될 자기 자신을 주운전자로 기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를 운전하지 않을 50대의 B를 주운전자로 기재하였다. 甲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A에게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. 甲보험회사는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? (10점)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



인사혁신처

상 법

1 1